

미래 노벨상 향한 '국가석학 10인' 선정

글 | 편집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 12월 12일 기초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낸 서울대 임지순 물리천문학부 교수 등 10명을 미래 노벨상을 향한 국가석학으로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국가석학은 수학분야에 채동호(성균관대)·황준묵(고등과학원) 교수, 물리학분야에 국 양(서울대)·이기명(고등과학원)·이수형(연세대)·임지순(서울대) 교수, 화학분야에 김명수(서울대) 교수, 생물학분야에 최의주(고려대) 교수, 지구과학 분야에 김기현(세종대)·이형목(서울대) 교수 등이다.

국가석학은 SCI 피인용 횟수가 1천회 이상(수학 분야는 100회, 지구과학 분야는 300회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

된 국가석학 가운데 임지순 교수는 SCI 피인용 횟수가 4천39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기명 교수는 2천735회, 이형목 교수는 2천538회다. 국가석학으로 선정되면 5년간 이론분야 연구는 매년 1억 원, 실험분야 연구는 매년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필요할 경우 5년 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학문분야별 선정자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수학분야의 채동호 교수는 비위상적 일반해의 존재성을 엄밀하게 증명함으로써 개발된 논법을 게이지 장론에서 모형화되는 여러 편미분방정식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황준묵 교수는 기하학, 특히 복소기하학 분야에서 오래된 난문제인 라자스펠드 예상과 유리균질다양



2006년 국가석학에 선정된 석학들이 지난 12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총리와 오찬을 함께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고등과학원 이기명 교수, 고려대 최의주 교수, 세종대 김기현 교수, 서울대 국 양 교수, 연세대 이수형 교수. 앞줄 왼쪽부터 서울대 이형목 교수, 서울대 김명수 교수, 서울대 임지순 교수, 성균관대 채동호 교수

연립사진

체의 변형불변성을 증명하였다.


물리학분야의 국 양 교수는 눈의 망막에 있는 화학분자의 스위치 현상을 세계 최초로 영상화하였으며, 이기명 교수는 초대칭 이론에서 자기 홀극의 저에너지 물리의 완전한 규명과 순간자들 관계의 규명 및 이들의 양자 역학적인 성질의 연구 등에 있어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렸다. 이수형 교수는 높은 온도나 밀도에서 강한 상호작용의 성질변화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임지순 교수는 고체의 다양한 성질을 양자 역학이론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물질구조연구에서 계산물리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화학분야에 선정된 김명수 교수는 분자, 특히 분자 이온의 구조와 반응에 대한 기초과학적 연구수행을 통해 '김 & 맥라퍼티' 이론이라 불려지고 있는 충돌 활성화 에너지론과 충돌 활성화의 수율에 대한 확률 이론을 수립하여 질량분석법의 기초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생물학 분야의 최의주 교수는 세포 사멸 및 스트레스 반응에 관

여하는 단백질인산화효소가 세포성장 억제 인자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발견하여, 세포사멸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조절기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로의 응용 가능성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생명과학분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구과학 분야의 김기현 교수는 전지구적 규모로 진행되는 수운의 순환과정에서 한반도 및 아시아권의 역할을 진단하고 인간과 동식물이 생활하는 생태환경권으로 배출되는 납, 카드뮴, 니켈과 같은 다수의 유해 중금속 물질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형목 교수는 항성 역학 분야에서 구상 성단과 은하 중심부 항성계의 역학적 진화 연구와 블랙홀 등 분야에서 별들의 연속적 합병이 성단 중심에서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인 '합병 불안정'을 제시하였고, 별 사이의 근접 상호 작용에 의한 쌍성 쌍성 충돌 단면적 계산 결과와 다질량 성단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여 성단의 질량 함수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연구 성과를 올렸다. 

연구팀



채동호 성균관대 교수(수학)



황준목 고등과학원 교수(수학)



국 양 서울대 교수(물리학)



이기명 고등과학원 교수(물리학)



이수형 연세대 교수(물리학)

연구팀



임지순 서울대 교수(물리학)



김명수 서울대 교수(화학)



최의주 고려대 교수(생물학)



김기현 세종대 교수(지구과학)



이형목 서울대 교수(지구과학)